“물 차오르는데…퇴선 지시 없이 대기하라”

세월호 생존 단원고생들 첫 법정 증언…선원들은 탈출 급급

“친구들 남아있다해도 해경은 별다른 움직임 안보여”

세월호에 탑승했던 학생들은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고 바닷물이 선실로 쏟아져 머리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전문가’인 선원들의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믿고(구조를) 기다렸다고 증언했다. 학생들은 또 급박한 침몰 상황에서도 차례로 줄을 서 구조를 기다리는가 하면, 물 속에 잠긴 동료를 밀어주고 서로 끌어올렸다고 증언, 구호 조치 없이 자신들이 살겠다고 탈출하기에 급급했던 선원들의 행태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학생들은 또 “승객 퇴선 지시를 분명히 했다”는 일부 선원들의 주장과 달리, ‘제발 단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어라’는 방송 외에 탈출 안내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비상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해경에게 “(배)안에 친구들 많이 있다고 했는데 별 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은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4층 선실에 머물렀다는 A양은 “선실에 물이 너무 차서 나오게 됐다”면서 “옆에 있던 출입문이 위로 가 구명조끼를 입고 물이 차길 기다렸다가 친구들이 밑에서 밀어주고 위에서 손을 잡아줘 방에서 빠져나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창문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왜 선실 안에 대기했냐는 질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라고 답했다. 물이 콸콸 쏟아지고 정전으로 캄캄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배가 기울면서 ‘쩌저적’ 소리가 나는데도, 전문가인 선원들 말을 들으면 안전하다고 믿었다는 얘기다.

학생들은 바닷물이 밀려들고 창문까지 바닷속에 잠기는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공포에 떨며 캐비넷에 몸을 숨겼다가 오히려 캐비넷이 쏟아지면서 갇히기도 해 탈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증언했다.

증언하는 학생들은 탈출 과정에서 ‘해경이 오고 있다, 기다려달라, 가만히 있어라’는 방송 외에 ‘탈출해라’는 방송은 듣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해경의 무심한 대응을 엿볼 수 있는 증언도 나왔다.

B양은 “비상구로 빠져나오면서 손 닿으면 닿을 거리에 있던 해경에게 “(배) 안에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도 별 다른 움직임이 없었다”고 했다. 당시 줄을 서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은 비상구 앞에서 서로 “(해경이) 왜 들어오지 않지”라고 얘기하는 등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학생들의 증언은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학생 가족과 취재진 등 10여명만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29일까지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참사 증언 28일 오전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들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증인지원실 전경. 〈사진공동 취재단〉

오늘의 날씨

해뜸 05:39 해짐 19:39 달뜸 07:36 달짐 20:40

불쾌지수 높아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비	22/32	보 성	비	20/30
목 포	비	22/29	순 천	비	22/30
여 수	비	22/28	영 광	비	21/31
나 주	비	21/32	진 도	비	21/29
완 도	비	21/29	전 주	비	22/30
구 례	비	20/31	군 산	비	22/30
강 진	비	21/30	남 원	비	20/30
해 남	비	21/30	흑산도	비	21/26
장 성	비	20/31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0.5
	먼바다	남동~남	0.5~1.5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먼바다	동~남동	1.0~1.5	동~남동	1.0~2.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8:56	03:46
	20:57	15:43
여수	10:19	04:14
	22:44	16:21

◇ **생활지수**

식중독	50
운동	10
빨래	20

◇ **주간 날씨**

30(수)	31(목)	8/1(금)	2(토)	3(일)	4(월)	5(화)
23/33	25/32	25/33	24/33	25/33	25/33	25/32

김엄마·운전기사 양회정씨 부인 자수

유병언 최후 행적 파악 관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부인 유희자(52)씨가 28일 검찰에 전격 자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직접 자수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2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30분께 유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 자수했다.

이들은 모두 범인은닉 및 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김엄마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기획한 이재옥(49·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이 5월 27일 검찰에 체포되자 이후부터 순천 지역 도피조를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래전부터 금수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며 평소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주말마다 금수원 내에서 신도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등 구원파의 대모 역할을 해왔다.

검찰은 김씨가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 전 회장의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여동생(47)에게 전화를 걸어 유 전 회장의 도피처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남편인 양씨는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여일 동안 유 전 회장의 순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수사 동향에 대해 알려주며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5월 29일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 승용차를 버려둔 채 경기도 안성으로 잠입한 뒤 행방을 감췄다.

그러나 양씨는 이날 자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김씨와 유씨가 자수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이 자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김씨와 유씨 등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 등 선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100일…지역민 20만명 이상 추모 현장 찾아

광주·전남 30여곳서 추모 집회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등 촉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아픔을 또렷히 기억하고 있다.

추모 행사장엔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시도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시도민들은 각 시·도에서 진행된 추모행사 현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시민사회단체의 뜻에 한목소리를 냈다.

추모 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다. 27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추모 현장을 찾은 누적 인원은 20만 명이 넘는다.

광주에선 동구 금남로·서구 화정동·북구 일곡동·광산구 운남동 등 16곳에서 매일 추모집회가 진행됐다. 대학생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길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이어갔다.

전남에선 진도·광양·여수·순천 등 15개 시·도에서 추모집회가 열렸다. 시민사회단체 수만도 50곳 이상. 민주노총·진보연대·농민회·여성단체·청년연대·YMCA 등이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꾸린 대책위만 대략 5개. ‘세월호 참사 광주대책위’를 포함한 ‘시국회의’, ‘시민상주모임’ 등이다.

이들은 지난 100일간 광주·전남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종자(10명) 신속한 구조,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실종자 전원이 돌아올 때까지 매주 한 차례씩 진도 팽목항으로 향하는 기다림 버스 운행을 비롯한 팽목 위로 문화제 등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추모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유병언 사망 시각 ‘구더기’로 역추적

전북경찰청 CSI

구더기를 통해 유병언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까. 전북경찰청 CSI는 27일부터 이틀간 유씨의 사망 현장과 시신에서 파리 유충의 번데기 탈피각과 구더기를 채취하고, 현장의 습도와 온도 등 주변 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구더기 등을 통해 유씨의 사망 시점을 유추한다는 게 전북경찰청 구상이다.

2009년부터 법곤충학 연구를 시작한 전북경찰청 CSI는 시신에서 발견된 곤충의 종류와 발육 상태를 통해 사망 시간과 원인, 장소를 추정하는 국내 유일의 수사기관이다. /연합뉴스

24면 증면 발행…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